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재호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안규백 장관 주재, 선정위 첫 회의 개최  
이전사업 추진 경과·향후 계획 보고  
운영규정·선정 기준 및 절차 의결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1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선정위원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지방자치단체장(전라남도지사·광주광역시장·무안군수), 관계부처(재정경제부·국도교통부 등) 관계관, 민간 전문가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선정실무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안)'를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안)'를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규정(안)'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 및 절차(안)'를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안 장관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이전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KFN TV '전투 상보, 전쟁의 기록',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선정

6·25전쟁 초기 국군6사단 활약 재조명  
KFN스페셜 3부작 뉴미디어 부문 수상

KFN TV가 기획·제작한 KFN스페셜 3부작 '전투 상보, 전쟁의 기록'(연출 고휘진·백진우 PD)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주관 '2025년 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KFN TV를 운영하는 국방홍보원은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2025년 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뉴미디어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KFN스페셜 3부작 '전투 상보, 전쟁의 기록'은 KFN TV가 지난해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특집으로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전투 당시 작성했던 기록인 전투 상보를 바탕으로 6·25전쟁 전환을 분석하고, 치열한 전투현장을 전문가가 직접 찾아 전투 상보 속에 담긴 승리의 비밀을 파헤쳐 큰 공감을 얻었다.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2025년 10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고광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KFN TV 고휘진 PD, 백진우 PD, 이원석 TV제작팀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FN 제공

특히 6·25전쟁 초기 국군6사단이 활약했던 춘천전투부터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며 북한군을 격퇴한 화령장전투, 마산방어전투의 승리를 재조명했다.

KFN TV는 KT 지니TV(IPTV) 101번, 또 다른 IPTV인 SK브로드밴드 B TV 263번, LG유플러스 TV 244번은 물론 위성TV 스카이라이프 163번 및 전국 케이블 방송, 'KFN'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방사청, 방산기술 보호 교육  
업계 임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진행

## 기품원·국기연·서울과기대, 미래 국방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맞손

전문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단화·복잡화 무기체계 품질관리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이 미래 국방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와 두 손을 맞잡았다.

세 기관은 17일 서울과기대에서 국방기술·품질 분야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AI) 등을 앞세운 무기체계는 날로 첨단화·복잡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고도화된 기술기획과 품질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기술·품질 분야 전문기관과 공학 분야 우수 대학이 손잡아 기술·품질 역량 발전을 모색하고, 전문인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 김동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왼쪽부터)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품원 제공

양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무기체계 기술·품질 분야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학술정보 및 교육·연구시설 공동 활용 △교류·협력 행사 공동 개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신상범 기품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기체계의 품질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미래 국방 품질관리 분야를 선도할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손재홍 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 기획·관리 전문역량과 대학의 연구역량이 결합해 첨단 무기체계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서울과기대 총장은 "세 기관의 동반 성장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대학이 보유한 공학 분야 전문성을 국방기술·품질 분야 발전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방산업계 임직원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 제고를 위해 '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방산업체·협력업체 소속 일반직원, 기술보호책임자, 핵심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한다. 올해는 국내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영어 교육 과정도 신규 개설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은 방사청 나라배움터(dapa-edu.nh.go.kr)에서 수강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권역별 기술보호책임자 교육,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교육 일정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www.kai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문 교육, 권역별 기술보호책임자 교육,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교육 등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교육 일정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누리집(www.kai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